

(나) “트러스거더 교량(Truss girder bridge)”이라 함은 끝은 부재를 부재 끝 부분에서 마찰이 없는 힌지(Hinge)로 결합한 삼각형의 뼈대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교량에 적합한 구조물, 즉 트러스를 이용한 교량을 말한다. 트러스교를 이루고 있는 주요구조는 주트러스(Main truss), 수평브레이싱(Lateral bracing), 수직브레이싱(Sway bracing) 및 바닥틀(Floor system) 등이다. 트러스교는 일반적으로 지간이 50~100미터 정도에 알맞는 형식으로, 비교적 작은 중량의 부재를 순차 조립하여 큰 강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외팔보 공법(Free Cantilever Method)의 채용이 다른 형식보다 유리하며, 또한 개개 부재의 단면이 작기 때문에 운반이 용이하며, 해협이나 산간 계곡 등에 적합한 교량이다.



<그림 1> 트러스거더 교량

(다) “주트러스(Main truss)”라 함은 수직하중을 지지하고 그 하중을 교대 및 교각으로 전달하는 트러스의 주부재를 말하며, 상현재와 하현재의 현재, 경사단주 및 수직단주의 단주, 수직재 및 사재의 복부재로 구성되어 있다.